용접 및 하우스 리모델링 모든 것 해결해 드립니다



녹슬어 떨어지거나 망가진 곳 수리 전문 하우스 리모델링·화장실 리모델링·플러밍 페인트·타일·에어컨·LED Light·버티컬 Metal Door·콘크리트·방범창살·핸드레일

SK 핸디맨 펜스/플러밍/리모델링

909.969.3669

■ 알고계셨나요?

정말로 그런가?

■ 발을 따뜻이 하려면?

양말을 신을 것이 아니라 모자를 써야 한다. 몸의 열기중 80%가 머리를 통해서 빠진다.

■ 임신과 아빠?

여자는 7~63세까지 엄마가 되고, 남자 는 13~100세까지 아<mark>빠가 될</mark> 수 있다.

■ 소리나는 꽃?

노란 앵초꽃은 새벽녘에만 핀다. 그리고 꽃이 필 때는 마치 비누방울이 터지는 것 같은 귀여운 소리가 난다.

미군, 60년 만에 다시 수상기 보유할까?

미국 록히드 마틴 사의 C-130 허큘리스 수송기는 지 난 1954년 첫 비행, 1956년 첫 인도된 이후 세계 각국에 2,500여 대가 판매되었다. 첫 비행 이래 70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운용 중인 베스트셀러 수송기다. 매우 긴 사용 이력과 많은 생산 대수 덕택에 개량형과 변형, 특이한 운용 사례도 많다. 원래의 목적인 수송기 외에도 소방 항공기, 탐색구조기, 기상 관측기, 해상 초계기, 공 중 급유기 등의 변형이 있다. 미 특수전 사령부(USSO-COM)도 특수부대의 적지 투입 및 퇴출용 및 CV-22 항공기의 공중급유용으로 C-130의 변형인 MC-130 을 운용하고 있다.

그런데 '사이언스타임즈' (sciencetimes.co.kr)에 따르 면 <제인 연감>으로 유명한 제인스 인포메이션 서비 스 사는 지난 5월 US SOCOM 사령관 리처드 D. 클라크 대장이 MC-130의 수상형(MC-130 Amphibious Capability의 약자로 MAC으로도 불리운다) 설계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.

MAC이 도입된다면 해상 및 도서 지역 환경에서 더욱 빠르게, 멀리까지 작전이 가능하다. 현재 미군 특수부대 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작전할 때 잠수정, CV-22 오스 프리, 소형 보트 등을 사용하고 있다. 그러나 이러한 기 존 이동체들은 단점이 명확하다. 잠수정은 느리고 크기 가 작다(정원 8명). 오스프리는 물 위에 내릴 수 없다. 소 형 보트는 항속거리가 짧다.

그러나 MAC는 C-130의 수송 능력과 속도, 항속거리 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위에 뜨고 내릴 수 있기까지 하 므로 해상 특수 작전에 이상적이라는 것이다.

1960년대 마틴 P5M 마린 수상기가 퇴역한 이후 미군 은 현재까지 수상기를 운용하지 않았다. 그러나 러시아 와 중국이 열심히 군용 수상기를 개발하면서 미국 역 시 군용 수상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. 러시아는 현재 흑해에서 Be-12 수상기를 운용하고 있으며, 장차



▲ MAC 개념도. 사진=patrioty.org.ua

Be-200 수상기 6개 비행대를 창설할 계획이다. 중국 역 시 보잉 737 크기의 자국산 AG-600 수상기를 개발 중 이며, 군사적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.

과거에도 미군이 C-130의 수상기형 개발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었다. 지난 1968년, 미 해군은 C-130의 수 상기형인 HOW(Hercules-On-Water의 약자)를 연구 했다. 항공기 하부 동체는 보트형으로 개수되었고, 항공 기 엔진과 프로펠러는 비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날개 위로 올려졌다.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이 항공기 를 구입하려 하지 않았다.

MAC이 만약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HOW와 같이 하 부 동체를 개수한 형식이 될 수 있다. 또는 날개 아래에 대형 플로트를 장착한 형식이 될 수도 있다. 이 경우 기 존 항공기를 쉽고 빠르게 MAC 사양으로 개수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. 그러나 이착수시 항공기가 수면에서 받 는 항력은 그만큼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.

MAC의 연구 개발 배경에는 러시아, 중국, 이란, 북한 등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이 있다. 그럴 경우 남중국해, 오호츠크해, 발트해, 서해, 페르시아만 등의 바다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. 이러한 바다 에 미국 특수부대 투입 능력을 확대함으로써, 가상 적 국들과의 전면전 발발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로 보인다.

